

# 인쇄용지 담합분야 점검 및 조사결과

2026. 4. 23.

공정거래위원회

# 인쇄용지 담합분야 점검 및 조사결과

## 1. 점검 배경

- 인쇄용지는 교육, 출판, 유통 전반에 사용되는 민생 밀접 품목으로, 지난 TF 4차 회의에서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·공개(3.12)
  - 상반기 중 제지 업계의 담합 조사 결과를 조속히 심의하기로 결정

## 2. 조치내용

- 한솔제지 등 6개 제지사\*가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가격 인상시기·인상 폭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,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(4.22)

\* 무림SP, 무림페이퍼, 무림P&P, 한국제지, 한솔제지, 흥원제지

▶ (시정명령)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

▶ (과징금) 총 3,383억 원 부과

\* [무림SP] 3억, [무림페이퍼] 458억, [무림P&P] 920억, [한국] 491억, [한솔] 1,426억, [흥원] 85억

▶ (고발) 2개 법인

## 3. 의의

- **가격재결정** 가격 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로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\* 부과\*\*  
→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아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가격 인하 가능

\*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공정위 협의를 거쳐 보고(3개월 내)

\*\* '06년 밀가루 담합 건 이후 두 번째 사례

- **반복 담합** 제지 업계는 그간 여러 차례 가격 담합이 적발\*된 분야로서, 이번 조치를 통해 담합 유인이 크고 관행화된 것이 확인

\* 2014 한솔제지 등 5개사 백판지 판매가 담합(과징금 1,057억) + 7개사 컵원지 판매가 담합(107억) → 2016 한솔제지 등 8개사 인쇄고지 등 구매가 담합(194억) → 2024 대한제지 등 3개사 신문용지 담합(305억)

## 4. 향후 계획

- (이행관리) 제지사 재결정 가격 및 산출근거 검토, 가격변경내역 모니터링 등
- (제도개선) 반복 담합 근절 방안 마련

※ ▲처벌 강화, ▲입찰참가자격제한 강화, ▲반복 담합 관련 등록취소·영업정지 등